

# 가을사랑

2018. October

10

[www.kma.go.kr](http://www.kma.go.kr) Vol. 448

---

정책 클로즈업

정부혁신과 기상청의 과제

---

포커스

황제의 비(Royal Rain)를 만드는 태국  
태국 국제기상조절 워크숍 후기

---

날씨 + STORY

가을에 마시면 좋은 차



기상청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 공익신고

##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 신고

- 홈페이지 **1398.acrc.go.kr**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신고대상 : 6대 분야, 284개 법률 위반행위

### 건강



- 불량식품 제조·판매
- 무면허 의료행위

### 안전



- 부실시공
- 소방시설 미설치

### 환경



- 폐수 무단방류
- 폐기물 불법 매립

### 소비자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 허위·과장광고

###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합
- 불법 하도급

### 기타 공공의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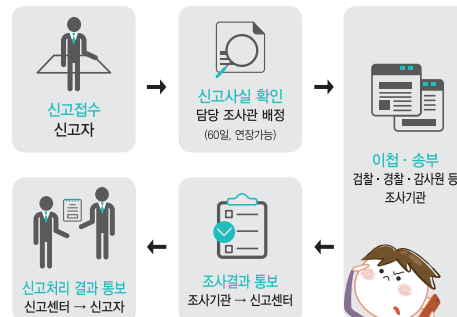
- 거짓 채용광고
- 방위산업기술 불법사용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신고보상금 최대 **30억**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 신고센터 소개

- 01 국가 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행위의 지속적 발생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 증가
- 02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재정관련 비리척결과 부정수급에 대한 종합적 대책 모색
- 03 '1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설치
- 04 '15년 1월 비복지 분야 보조금 신고까지 처리하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

## 신고사건 처리절차



## 신고방법

### ■ 신고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 ■ 신고방법

-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 팩스 : 044-200-7972
-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 모바일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 신고요령

-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익명신고 불가)
- ▶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하늘사랑

2018 October Vol. 448 2018년 10월호(통권 448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60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18년 10월 10일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발행인 김종석 편집장 김현경 편집기획 윤기환 최의수 조희애  
디자인/인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KMA Special Issue

정책 클로즈업  
정부혁신과 기상청의 과제 · 02

포커스  
황제의 비(Royal Rain)를 만드는 태국  
태국 국제기상조절 워크숍 후기 · 04

## KMA 날씨 +

날씨 + Story 가을에 마시면 좋은 차 · 18

날씨 + Book 행운이 아닌 날들, 비행운(非幸運) · 20

날씨 + Travel 나 홀로 유랑인의 30일 유럽여행 · 22

날씨 + 연애 오른쪽에서 몰드는 가을 · 24

날씨 + Essay 이방인으로 사는 법 · 26

## KMA About

열린마당  
커리어 멘토로 기상 예보관의 꿈을 키우다 · 06  
그날의 비, 구름, 바람, 기온 · 08  
꿈같은 제주환상 자전거길 라이딩 · 10  
플리마켓 첫 셀러 이야기 · 12  
기자? 아니, 우리는 기후변화 알림이! · 14  
열정의 나라 스페인으로! · 16

## KMA Report

포토 브리핑 · 28

독자 마당 · 30

포토 에세이 · 32



October



0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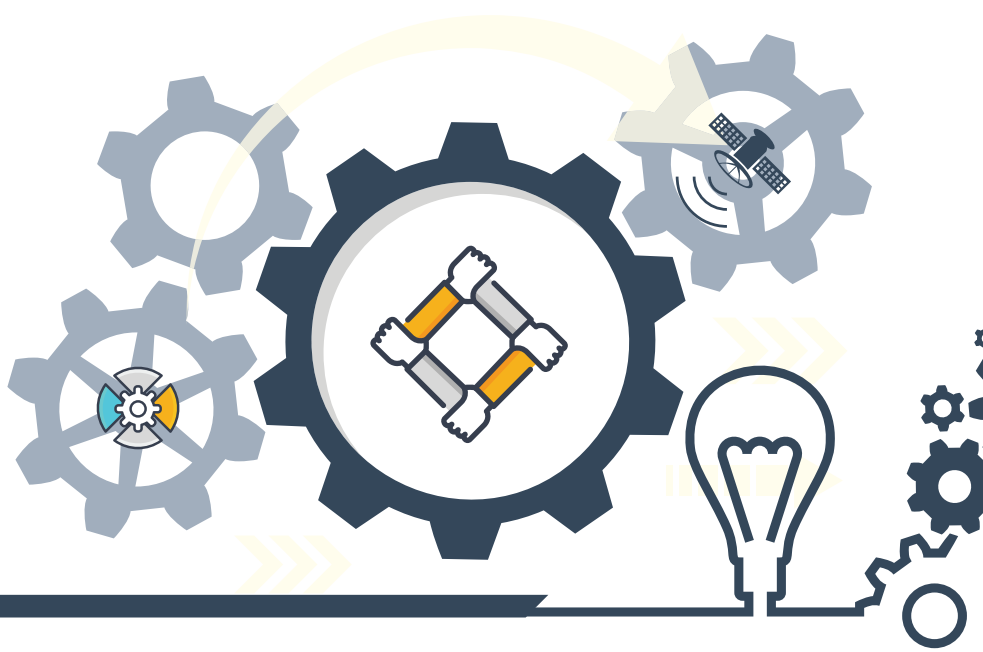


23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http://www.kogil.or.kr)

# 정부혁신과 기상청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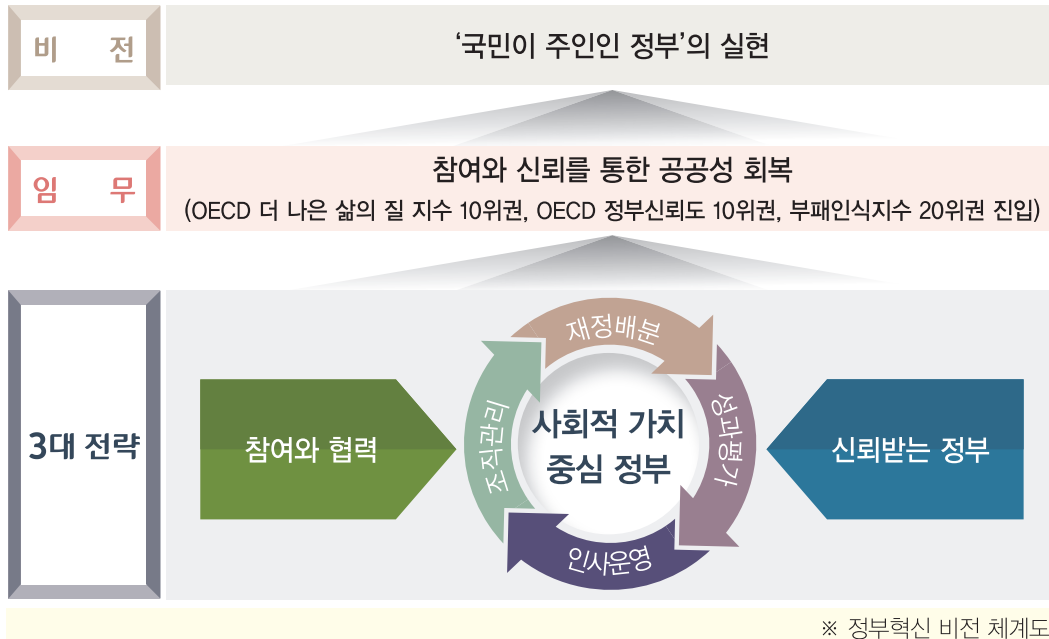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실

현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정 운영 전환으로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는 정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정책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그 뜻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참여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인 것이다.

- ※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소(OECD 「정부혁신 트렌드」 보고서, 2017년 2월)
  - ① 관료적 장벽 극복
  - ② 투명·개방적 신뢰에 기반한 시민과의 관계 구축
  - ③ 시민들의 아이디어 활용
  - ④ 혁신 촉진 문화 형성

기상청은 개혁을 이끄는 주체로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어주는 혁신을 추진하고자 '기상청 정부혁신 시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기상청의 정부혁신 시행 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상청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1. 예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제도를 구축한다

- ① 연구개발(R&D), 정보화, ODA의 유사·중복성 사전 점검
- ② 전 주기적(기획-예산배분-조정-평가) R&D제도 기반의 전략적 연구 수행으로 연구 성과를 고려한 효율적 예산 투자
- ③ 정보화 사업의 중복성, 타당성 및 정보자원 공동 활용 조정 등 검토

2.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현장 서비스를 위한 기상예보 조직을 개편한다

- ① 기상청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인사관리규정의 일부 개정
- ② 본청-지방 예보조직 간 역할 재조정
- ③ 사용자 중심의 예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전담 부서 신설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 하는  
기상청

3.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호우특보'를 실시하고 기상업무 혁신리더위원회를 운영한다

- ① 예보업무규정 제17조, 관련 호우특보 기준 개정·시행
- ② 기상업무 전반에 대하여 경제·언론·NGO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

4. 여러 분야의 공공자원을 개방·공유 확대한다

- ①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콘텐츠 강화, 대용량 데이터 분석·환경 보강
- ② '기상자료개방포털'을 통한 관계기관(28개 기관) 기상관측자료의 통합서비스(관측→수집→처리→제공)
- ③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 단축 및 지진의 규모와 진동 영향을 알려주는 진도정보 서비스 실시
- ④ 해양기상 맞춤형 서비스 'Sea for you'웹사이트 구축
- ⑤ 국민생활과 밀착한 분야의 생활기상정보 서비스와 수요자 요구에 부합한 가뭄예보 시행

5. 기관 간 또는 민관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열린정부를 구현한다

- ① 다부처(기상청·행정안전부·산림청) 협력을 통한 재해영향모델(호우·폭염·산림)을 공동개발
- ②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 ③ 지역 창업지원 기관 간 협업을 지역산업 연계 창업 활성화
- ④ 미래 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 개발

넓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기상청

6.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난다

- ① 부패 예방, 공직비리 척결 추진 및 청렴문화 확산
- ②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근무환경 조성

7. 국민중심 4대 행정혁신(데이터·창의·규제개혁·낭비제로) 실행한다

- 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날씨 영향예보(디지털 행정서비스)
- ② 수평적·창의적·상향식·자율적 조직문화 조성
- ③ 기상재해 대응의 최접점인 지역현장과 적극적 소통(방재기상지원관 운영)
- ④ 근무 여건 개선으로 업무 만족도 제고

기상청은 주도적 혁신과제 시행으로 정부혁신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정부혁신의 목표와 비전에 한 발 더 다가서고자 한다. 기상청의 혁신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시행하기 위한 최적의 노력을 통해, 기상청의 모든 구성원이 혁신을 이끄는 주체로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

# 황제의 비(ROYAL RAIN)를 만드는 태국 태국 국제기상조절 워크숍 후기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 국제기상조절 워크숍이 태국에서 열린다

가뭄, 폭염,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및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 중 하나로, 인공증우·증설 프로젝트가 37개국에서 150여 개 이상 수행(세계기상기구(WMO) 보고서, 2016) 중이며, 이 중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태국 등이 현업에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태국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인공증우·증설 수행기술을 확보한 나라다. 이번에 열린 워크숍은 태국이 아센(ASEAN)국가(10개국 중 7개국 참가)와 세계기상기구, 한국, 중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개최한 기상조절 국제회의이다. 한국 대표로는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차주완 연구관과 고아름 연구원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기상조절기술의 최근 현황과 계획을 발표하고, 각 국가 대표단과 기상조절 관련 논의를 나눴다.

## 태국, 우수한 인공증우·증설 기술을 확보한 나라

우선, 첫 번째 가질만한 의문은 '태국이 어떻게 인공증우·증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었는가' 일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동남아시아에서도 건기가 되면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태국의 전 국왕인 라마 9세가 1950년대부터 직접 인공증우·증설 실험을 진두지휘하였다. 당시 개설된 인공증우·증설업무 수행 부서 농림부내 DRRAA(Department of Royal Rainmaking and Agricultural Aviation)는 현재까지 거의 6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인공증우·증설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개선하고 있다.



아센 2018 국제기상조절 워크숍



인공증우 비행 전, 항공기 안에서

DRRAA는 지방 조직으로, 총 5개의 기상조절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기 31대, 헬기 8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 달에 약 20일 이상 인공증우용 비행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수치모델링, 관측,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관련 기술도 종합적으로 연구 중이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은 자국에 최적화된 인공증우·증설 기술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으며, 태국의 수자원 확보에 기여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실제로 2016년 기준으로 목표 지역의 강우량을 약 12% 정도 증가시켜, 농업용수 확보 및 자연생태계 유지 관리 등 직간접적인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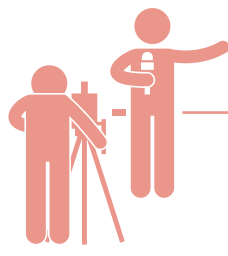
### 인공증우를 직접 실험해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협력 회의 참석뿐만 아니라 실제 태국에서 인공증우를 위한 비행에 동행했다. 우선, 비행 전 목표 지역(주로 댐 지역)에 강우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구름의 위치와 시간, 수치모델 및 관측자료를 이용해 정하고, 정해진 구름의 상태에 따라 구름 씨앗 물질을 다르게 하여 목표 지점에 최대한 많은 강우가 발생하도록 했다. 인공증우를 수행할 항공기에는 염화나트륨(NaCl) 1000kg이 실려 있었다. 이후, 항공기를 이륙시켜 목표 구름에 다가가 항공기 바닥에 구멍이 난 부분을 통하여 염화나트륨을 살포하였다. 1시간 정도 비행을 한 후 복귀하니, 레이더 분석 결과가 출력돼 있었다. 레이더 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에코가 염화나트륨 살포 후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공증우 비행이 성공한 것이다.

이처럼 인공증우·증설에 의해 생성된 비를, 태국에서는 라마 9세 국왕의 덕분에 비가 내린다고 하여 ‘황제의 비(Royal Rain)’라고 불린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일생을 바친 태국 국왕의 노력이 태국을 인공증우·증설 기술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 또한 대한민국의 기상조절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국내 인공증우·증설 기술개발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되새겼다. 🌧️

# 커리어 멘토로 기상 예보관의 꿈을 키우다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일선 학교에서도 진로 체험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대전지방기상청에서는 매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커리어 멘토)을 운영 중이다. 커리어 멘토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기상청에 찾아와 기상업무를 이해하고, 예보 센터를 방문해 우리 동네 예보관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6개의 학교에서 200여 명의 학생이 대전지방기상청 커리어 멘토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 커리어 멘토를 통해 만난 아이들

뉴스나 신문을 통해 일기예보를 접하던 시대와 달리, 이제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정보의 유통 경로가 넓어졌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원할 때마다 날씨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연재해와 날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상청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함께 높아졌다. 커리어 멘토 프로그램을 하며 만난 한 학생은, 몇 년 전 폭설 속에 눈을 맞아가며 날씨를 전하던 뉴스 기자의 모습을 보고 날씨에 관심이 생겨 기상전문기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반짝이는 눈망울로 예보관에게 많은 질문을 쏟아내던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 나는 학원에서 문제집에 있는 질문만 할 줄 알던 학생이었는데, 저 친구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질문하고 있었다. 이런 아이들의 새싹같이 푸른 호기심을 해소해줄 수 있을 때 커리어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



**엄태윤**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 나도 기상 예보관!

물론 멘토링 프로그램은 기상업무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다.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거나 기상과 관련된 진로 탐색의 기회가 없었던 청소년들에게 기상업무를 소개하고 장래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내는 데도 목적이 있다. 역할극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흥미가 떨



어지는 주제를 강의로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집중도는 현저히 떨어진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강의를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기예보 생산 과정이 떠올랐다. 중학생쯤 되면 자신이 수학을 좋아하는지, 과학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국어나 사회 과목을 좋아하는지 인지하게 된다. 이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상업무를 예보, 관측, 연구, 슈퍼컴, 통보 5단계로 나눠 다섯 명의 아이들이 한 조가 되어서 직접 예보문을 작성하고 통보하는 일련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역할극을 구성했다.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활동 체험이 있는 후반부로 접어들자, 강의를 들으며 졸던 아이들이 줄었고 설문 조사에서도 호의적인 응답을 받았다.

###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고민

최근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도 이와 비슷한 직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운영 방식 또한 강의 위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교구를 개발해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다. 요즘 나오는 교구는 단순히 종이를 접고 조립하던 과거의 만들기 모형 수준을 벗어나 아이들이 직접 조종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반응형 교구라 인기가 좋다. 이에 비하면 현재 기상청의 교육용 자료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타고 빅데이터, 코딩 등이 화제다. 이와 맞물려 아두이노나 마이크로비트 같은 저렴한 교육용 마이크로보드도 보급됐다. 우리 기상청도 미래의 인재가 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구로 교육을 진행해야 할 시기이다.

### 기상 분야의 큰 인재를 기다리며

기상해설사로 3년째 커리어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을 만나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장래를 함께 고민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상청을 떠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학생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들 중 누군가는 우리 기상 분야에 큰 인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 그날의 비, 구름, 바람, 기온

땀방울이 내리쬐는 한여름 낮, <Weather: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 전시회를 보기 위해 디뮤지엄(D MUSEUM)을 찾았다. 이 전시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26명이 날씨의 다양한 요소인 햇살, 눈, 비, 안개, 뇌우 등을 사진, 영상, 사운드, 설치 작품을 통해 표현한 예술 전시로, 총 세 개의 챕터 '날씨가 말을 걸다', '날씨와 대화하다', '날씨를 기억하다'로 전개된다.

# 비 구름



김은전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 CHAPTER 1. 날씨가 말을 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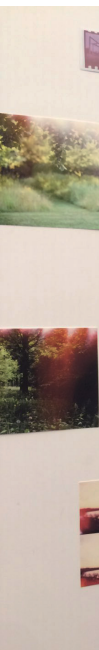
첫 번째 챕터에서는 무심히 지나쳐온 일상 속 날씨를 다채로운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을 통해 재발견하게 된다. 첫 작품은 작은 공간 옆면에 회전문을 설치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을 표현한 신비로운 작품이었다. 관람객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빛의 모습이 나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어서 작품을 감상하던 중 어느 익숙한 사진 한 장이 발길을 멈추게 했다. 눈 덮인 지평 위 밤하늘에 오로라가 떴고 누군가 외롭게 설치된 백엽상에서 홀로 관측 중인 사진이었다. 겨울에도 해가 뜨지 않는 러시아 북부의 호도바리하(Khodovarikha) 기상 관측소에서 13년 이상 홀로 근무한 기상학자 슬라바 코룻키(Slava Korotki)가 담담하게 지내는 일상을 기록한 작품이라고 한다. 이 남자의 눈빛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읽고 싶었지만, 말 대신 무언의 지독한 외로움만 느껴졌다. 나도 기상청에서 근무하고 있어서인지 이 남자가 느낄 고독과 쓸쓸함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다.

이외에도 마틴 파 작가의 해수욕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강렬한 색감의 사진, 올리비아 비 작가가 자신의 일상과 친구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마음에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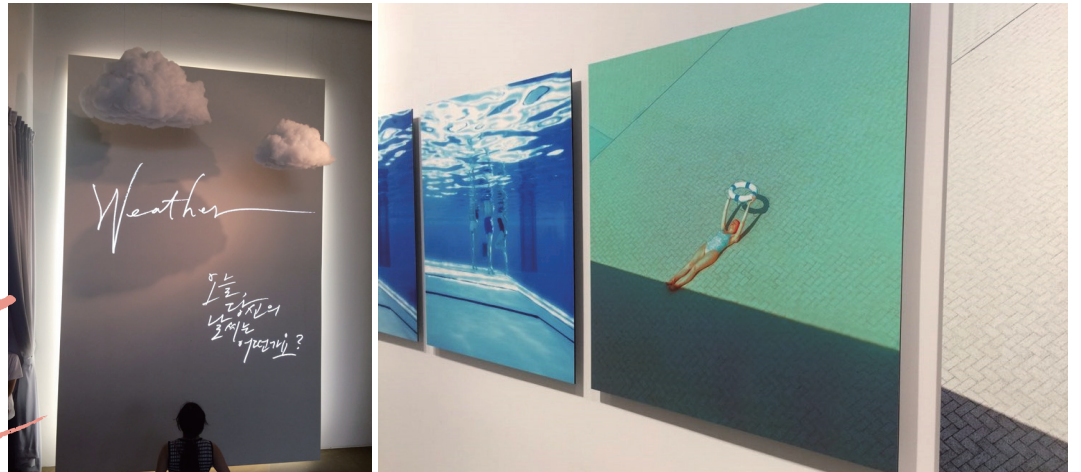
## CHAPTER 2. 날씨와 대화하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시각, 촉각, 청각 기반의 작품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며 날씨에 관한 감각을 확장하게 된다. 전시 입장권의 배경 사진으로 쓰인 수영장 시리즈가 전시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하는 수영장의 모습이 아니라,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주였다. 사진 속 그들은 마치 마네킹처럼 보였고 수영장은 한산했다. 작품의 색감과 구도가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 아름

## 기온



작가 마리아 스바르보바는 체코슬로바키아 벨벳혁명(1989)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88년에 출생했다. 사회주의 시대를 직접 체험하진 못했지만, 작가의 주변 인물, 건축물, 공공장소 등에 잔존한 역사의 흔적이 그녀의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사회주의 시대에 지어진 공공 수영장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한 대표작 〈Swimming Pool〉(2014~) 시리즈에서는 수영장 타일처럼 절제되고 굳은 포즈와 표정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작가는 공간과 색채, 분위기를 다소 냉담하게 제시하여 직관적이며 절제된 색조로 담아내려고 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투명한 커튼 속에서 목직 안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섹션과 시원하게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어두운 통로를 걷는 섹션이 있어 전시가 이색적으로 다가왔다.

### CHAPTER 3. 날씨를 기억하다

세 번째 챕터 '날씨를 기억하다'에서는 작가의 개성에 따라 날씨가 기록되는 방식을 감상하며, 각자의 기억 속 날씨가 어떠한 감정과 형태로 자리 잡는지 관찰할 수 있다.

핀란드 태생의 야리 실로마키의 작업 〈My Weather Diary〉(2001~2018)는 작가가 2001년부터 매일 촬영한 사진들을 일기 형식으로 구성한 것으로, 각각의 이미지마다 같은 날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작가의 손 글씨가 적혀있다. 하루하루의 기록이 모여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된 것을 보고 나도 매일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정해서 꾸준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관람을 마친 후, 일상적인 기억 하나가 문득 떠올랐다. 우리 집 거실에 금붕어 세 마리가 사는 작은 어항이 있었는데, 정오쯤이면 거실로 들어온 햇살이 어항 수면에 반사되어 거실 천장에 작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 냈다. 바람에 어항 물이 일렁일 때마다 천장에 반사된 그림자는 반짝반짝 빛이 났다. 이 기억이 내 머릿속에 자연스레 자리 잡은 걸 보면 천장에 비친 그 모습이 꽤 예뻐나 보다.

<Weather: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 전시는 10월 28일까지 개최된다. 여러분도 내면 어딘가에 자리한 날씨에 관한 기억을 찾으러 떠나보면 어떨까? 📍





# 꿈같은 제주환상 자전거길 라이딩

전국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8월 첫째 날. 이 더위에 무슨 객기냐며 혀를 차는 아내에게 1박 2일의 짧은 여행을 간신히 허락받고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목표는 제주도 용두암에서 시작해 용두암으로 끝나는 '제주환상 자전거길'의 총 234km 국토종주 코스를 완주하는 것이었다.



제주환상 자전거길 코스

## 푸른색 안내선을 따라서

제주도 자전거 일주는 대부분 서쪽 방향(반시계 방향)으로 시작한다. 그래야 바다를 마주 보면서 달릴 수 있고, 동쪽으로 시작했을 때보다 도로를 건너야 하는 횡수가 적기 때문이다. 자전거길은 바닥의 푸른색 안내선만 따라가면 된다. 친절하게도 가는 길 곳곳에 다음 인증센터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구간 내내 친절한 것은 아니다. 중간에 안내선이 사라져서 당황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특히, 복잡한 시내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 도로 공사 후 다시 그려 놓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제주도의 길은 어디로든 이어진다. 조금 느긋하게 주위 경치 구경을 하면서 달리다 보면 어느새 푸른색 선을 다시 만나게 된다.



김상현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나홀로 여행객의 영원한 친구, 볼록거울



## 나홀로 레이싱의 즐거움

자전거길은 대체로 무난한 평지 길이 대부분이긴 하나, 제주도 남부코스는 조금 힘들다. 송악산에서 베이스캠프인 표선해수욕장까지 이어진 72km 구간에 오르막길이 많고 서귀포 시내를 가로지르기 때문이다. 특히 자전거 라이딩 첫날인 8월 1일은 동풍이 불어 편현상으로 야기된 고온현상으로 서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황이었다. 안 그래도 더위에 지쳐 있는데, 마치 누군가 내 앞에서 헤어 드라이기 바람을 쏘는 것처럼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 숨까지 턱턱 막혔다. 하지만 자신을 시험해보기에는 좋은 구간이다. '아직은 젊지!'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대학생 자전거 여행족을 오르막길에서 추월해보는 소소한 나 홀로 레이싱의 즐거움도 있다.

## 표선해수욕장에서 함덕해수욕장까지

어스름해지기 시작한 저녁 무렵, 뜨거운 맞바람과 오르막길에 지쳐 몸에서 이탈하려는 영혼을 부여잡고 표선해수욕장에 도착했다. 드넓은 모래사장이 특징인 표선해수욕장은 야영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이번 여행을 위해 장만한 1인용 텐트를 간신히 설치하고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며 꿀잠을 취했다. 낮 동안의 열기 때문에 열대야가 있지만…… 이 판국에 더위가 무슨 상관이고, 가족 캠핑족 사이의 외로움이 무슨 상관이겠는가! 나에겐 낭만이 있는데. (눈가에 고이는 눈물은 옆 텐트에서 넘어오는 바비큐 숯불 연기가 매워서 일 것이다. 전혀 서럽지 않아)

자전거길은 차량 운행이 적은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어 아름다운 해안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데, 그 중 성산에서 김녕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동부지역 코스는 말 그대로 환상적이다. 최근 제주도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인 이곳은 시원한 에메랄드빛 바다와 풍력 발전소가 어우러져 가장 제주다운 모습을 뽐낸다. 수많은 가족 혹은 커플 관광객의 흥수 속에서 새삼 가족이 그리워지는 것도 잠시, 땀이 들어가 축축해진 눈물…… 아니, 눈가를 닦으며 아름다운 경치에 애써 집중해본다. 전날 맞바람으로 괴롭히던 동풍이 이제는 내 등을 밀어주며 힘내라고 응원하는 듯하다. 시원한 바람을 등에 업고 마지막 인증센터인 함덕해수욕장을 지나며 저물어 가는 해를 쫓아 제주도 자전거 일주를 무사히 마무리했다.

## 아직, 청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주도를 관광한다. 자전거 여행은 제주도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1박 2일의 짧은 자전거 여행이었지만 스스로 '아직 청춘'이라는 자신감을 얻고 아름다운 제주의 여름을 추억의 한 페이지에 장식할 수 있는 멋진 라이딩이었다. 홀로 라이딩도 좋지만,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해 추억을 배가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



표선해수욕장에서 캠핑



아름다운 김녕해변

# 플리마켓 첫 셀러 이야기

야문딱 털장? 외계어처럼 들리는 이 말은, ‘밤 야(夜)’와 제주어로 ‘모두, 모조리’를 뜻하는 말, ‘몬딱’을 붙여서 털어서 내놓는 시장이라는 뜻이다. ‘집에서 잠자는 물건들을 깨우자!’라는 슬로건 아래, 사용하지 않는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야간 벼룩시장이자, ‘제주관광공사’와 ‘일로와 제주’가 공동으로 기획해 탄생했다.



## 내 옷장 문딱 털장!

야문딱 털장의 주 무대는 제주시 연동 삼다공원이다. 서귀포에 사는 나에게서는 거리가 너무 멀어 셀러로 참가하기엔 힘든 조건이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이번에는 야문딱 털장이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한번 신청해보라는 말에 큰 기대 없이 지원했다. 워낙 많은 셀러가 참여하고 싶어 하는 곳이라 경쟁률이 썩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셀러 모집이 조기 마감 됐다는 소식을 듣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운이 좋게도 셀러에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한참을 좋아하던 나는 곧바로 친구들과 마켓이름을 정하고, 내다 팔 물건들도 준비했다. 평소 옷에 관심이 많아서 장터 경험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지니 정말 감사했다. 그동안 손이 가지 않아서 안 입은 옷들과 어울리지 않아서 못 입었던 옷들을 준비해 아끼던 향수를 칙칙 뿌려놓았다. 기회를 만들어준 친구야, 고마워!



이지미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운영과

## 두근두근 폴리마켓 오픈

폴리마켓 당일, 바람이 심하게 불어 옷과 액세서리를 진열하는 데 애를 먹었다. 자꾸 바람에 날리고 쓰러지고! 비 소식이 있어서 조마조마했지만 어찌어찌 마켓을 오픈했다. 물건을 진열하는 와중에 예쁘다고 구경하다 구입해가는 손님이 꽤 있었다. 처음엔 손님에게 쭈뼛쭈뼛 말도 걸지 못하다가 찾아주시는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용기 내 한 마디 말을 걸며 판매를 시작했다. 나중에는 꽤 긴 대화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 마켓에 여러 번 찾아와준 어린 친구들과는 금방 친해져서 재밌는 수다도 떨었다. 어린 친구들이 와서 구경하고 구매하는 게 마냥 귀여웠다. 나름대로 준비한 사은품도 손님들께 드리고 가격도 더 저렴하게 판매했다. 그러다가 축구 경기가 시작됐다. 한산해진 시간엔 다른 마켓 셀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마켓을 찾아온 지인들이 두 손 무겁게 준비한 저녁 식사와 디저트를 함께 나눠 먹었다. 고마운 사람들!

## 또 만나요, 손님~

축구 경기가 끝난 9시쯤, 손님들이 더 많아졌다. 막바지로 갈수록 비가 조금씩 오더니, 마켓이 거의 끝날 무렵 비가 많이 내렸다. 그 덕분이었을까? 마지막에 몰려온 손님 중엔 한 번에 많이 사가는 손님이 많았다. 나도 끝 무렵이라 더 저렴하게 팔았다. 예쁘게 잘 입겠다고 한 어느 손님의 기분 좋은 말이 자꾸 떠올랐다. 나에겐 어울리지 않던 옷이 그분께 가니 너무 예뻐 보였다. 나보다 훨씬 더 잘 어울렸고, 옷을 산 손님도 무척 마음에 들어 해 덩달아 나까지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30분이나 일찍 마감하게 되었다.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날씨가 화창한 날 꼭 다시 참가하고 싶다!

## 첫 셀러 활동을 마치며

마켓을 하는 동안 나를 사장님으로 대접해준 친구들 덕분에 수월하게 해낸 것 같다. 판매 금액은 예상보다 적었지만, 계산, 옷 정리는 우리가 할 테니 너는 판매만 하라며 두 팔 걸어붙이고 도와준 사랑하는 친구들과 소소한 회식도 했다. 누구 옷이 제일 많이 팔릴까 내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내가 1등을 했다. (역시 질보다 양인가!) 굶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었다. 친구의 작은 제안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준 날이었다. 🍷



# 기자? 아니, 우리는 기후변화 알린이!



“과장님께서 대학생 기자단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하세요. ‘기후변화 알린이’는 말 그대로 ‘알린이’니까요!” 대학생 기후변화 알린이 위촉식 날 들은 말이다. 이날 임무를 명받은 17명의 대학생을 어떻게 지칭하느냐에 대한 문제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분명한 복선이었다.

## 기자단이 아니고, 알린이다

대학생 기후변화 알린이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방치돼 있던 개인 SNS 계정을 심폐 소생시킨 것이다. 나는 SNS를 수시로 들락날락하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글을 퍼 나르는 소식통이 되었다. 마감일에 맞춰 카드뉴스를 만들 땐 스스로 작가가 되었고, 시청 광장과 흥대로 나가 시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할 땐 웅변가가 되었다. 그뿐이라. 친구나 지인에게 환경을 위한 에코 슬리브 사용을 권할 땐 영업부 사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글만 작성하는 기자가 아니다. 직접 치고, 행동하고, 발로 뛰어 값진 경험을 얻어내는 ‘알린이’다.



**김은재**  
제7기 대학생 지역기후변화 알린이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8월 12일, 흥대 광장에서 교육코미디 기후극을 펼쳐 시민들에게 기후변화과학을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알렸다.



종이로 만든 홀더컵 사용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알린이들은 직접 헌 청바지로 만든 에코 슬리브를 나눠주며 홍보했다.





열심히 교육 받는 알림이들



서울 시청광장 빗물축제에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다. 노력하는 만큼 전달할 수 있다.

기후변화 알림이들의 회동

## 글쓰기는 어려워

한 달에 한 번, 자괴감에 빠지는 날이 있다. 매월 제출하는 미션 콘텐츠 마감일이다. 카드뉴스를 거의 다 완성한 시점에, 속된 말로 '노잼'인 내 기사를 다시 물리고 싶은 날도 있다. 알림이의 역할 중 하나는 기후변화를 알리는 기사를 쓰는 것인데, 기후변화는 기본적으로 과학이라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줄줄이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런 친절이 길어지면 지루한 글이 된다.

기후변화를 알리겠다는 나름의 사명감으로 쓴 내 글은 인기가 없었다. 조회수도, 댓글도 별로 없었다. 설명에 집착한 탓이다. 반면, 옥수수라는 접근성 높은 아이템으로 지구온난화와 고온피해를 재미있게 설명한 고경희 알림이의 글은 순식간에 인기를 끌어 아주 짧은 기간에 만 명이 넘는 조회수를 달성했다. 지루하지 않으면서 정보성까지 있는 글을 어떻게 재밌게 쓸 것인지 다음 기수 알림이들이 반드시 풀어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나도 노력은 해봤으나 끝내 성공하진 못했다. 미래의 알림이들이 툭툭 튀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좋은 기후정보원이 되길 소망하며 이 실패담을 전한다.

## 잔소리꾼이 되기로 했다

지난 7월 말, 알림이들은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빗물축제에서 기후변화를 외쳤다. 내가 맡은 역할은 온실가스 배출을 경고하는 일이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나 높아졌어요!" 목소리를 높여 호소했다. 미지근했던 시민들의 반응이 점차 좋아지더니, 마침내 한 중년 여성의 입에서 '아휴, 진짜 심각하네!'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기후를 위협하는 요소는 대단히 큰 게 아니다.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에 녹아있다. 일반인들은 자신의 생활 패턴이 지구를 멍들게 하는 행동이란 걸 자각하지 못한다. 누군가 옆에서 콕 집어줘야 한다. 그렇다면 그 잔소리꾼은 누가 되어야 하는 걸까. 기상을 공부한 나 같은 사람과 하늘을 업으로 삼은 기상청 사람들이 앞장서 행동해야 한다.

나는 알림이를 시작으로, 지구 기후를 변호하는 잔소리꾼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의 기후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기상청 안에서도 이 같은 작은 변화가 시작되길 바라본다. 🌱

# 열정의 나라 스페인으로!

대학 시절 로망이었던 유럽 배낭여행! 막연히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하던 차, 합리적인 가격대의 스페인행 비행기 표를 발견하고 흥분 듯 결제를 해버렸다. 혼자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 관찮겠거니 했는데 막상 날짜가 다가오니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다.



백정은  
전주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 바르셀로나에서 만난 웅장함

드디어 D-day! 무려 14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바르셀로나에 도착했다. 첫 일정은 가우디 투어였다. '건축주를 망하게 하는 건축가'라는 별명이 붙은 가우디의 작품은 매우 흥미로웠고, 대망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그 웅장함에 기가 눌려 말없이 쳐다보기만 했다. 다음날도 날씨가 좋지 않아 계획을 급히 변경해 근교 도시 시체스에 갔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점점 구름이 걷히고 시체스에 도착하니 한국에선 볼 수 없었던 파란 하늘이 나타났다! 탁월한 선택이었다.

## 낭만과 햇살이 함께 한 스페인 남부

바르셀로나 여행을 마치고 스페인 남부로 향했다. 날씨가 더운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 여행하기에 적당했다. 색종이 같은 파란 하늘과 초록이 짙은 나무, 하얀 건물들의 아름다운 조합은 사진을 찍기 위해 집어 든 휴대폰을 여행 내내 내려놓을 수 없게 만들었다.

말라게다 해변의 여유로움이 좋았던 '말라가'와 시원한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가만히 파도 소리를 들었던 지중해의 발코니 '네르하', 모든 골목이 너무 예뻐 그리스 산토리니가 연상되었던 '프리힐리아나' 전부 하나같이 너무 좋았다. 룬다의 누에보 다리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이어주는 다리로, 42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건설되었다. 120m의 협곡을 가로지르고 있는데 낮의 일몰과 밤의 모습이 모두 장관이라 눈을 땔 수가 없었다. 남부의 마지막 도시인 세비아에서 봤던 플라멩코도 정말 열정적이었다. 노래를 100% 이해할 순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한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 배우 김태희가 광고를 찍어 유명해진 스페인 광장과 36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하는 히랄다 탑은 그곳에 오르기까지의 고생을 날려버릴 만큼 멋진 전망을 보여줬다.



## 음식으로 기억된 마드리드

마드리드에서도 좋은 곳이 많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헤밍웨이가 즐겨 찾았다는 식당이었다. 동굴같이 생긴 작은 식당에서 헤밍웨이가 먹은 버섯 요리와 상그리아를 먹었다. 음식도 물론 맛있었지만, 중후한 할아버지가 직접 연주해주는 피아노 선율과 함께한 식사는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다.

스페인을 여행하면서 맛있는 타파스와 상그리아 한 잔에 모든 피로가 풀리기도 하고, 발 달는 대로 들어간 식당에서 시킨 음식의 물골에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다. 평소 맛집 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스페인에서는 음식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순간순간이 행복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도 힘든 점이 두 가지 있었다. 바로 담배와 소금! 스페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길거리나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았다. 비흡연자인 나로서는 익숙지 않은 풍경과 그로 인한 담배 연기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졌다. 또, 음식은 어찌나 짜던지, 소금이 귀했던 옛 시절에 귀한 손님일수록 소금을 많이 넣어주던 것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하지만 음식이 짜도 너무 짜서 '신 쌀 뿌르빠보르(소금 빼주세요)'를 항상 외쳐야 했다.

## 스페인 여행을 마치며

스페인 사람들의 식탁에는 항상 술이 있다. 음식은 짜고, 담배도 이렇게나 많이 피는데, 놀랍게도 스페인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 장수 국가라고 한다. 그 비법은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시에스타(낮잠)가 당연시되는 여유로운 삶에 있지 않을까 싶다.

여행의 끝은 항상 아쉬움인 것 같다. 길고도 짧았던 나의 첫 유럽 여행이 끝난 뒤 한국으로 돌아와 시차 적응할 새도 없이 현실로 돌아왔지만, 그동안 받은 에너지로 또 열심히 살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며칠간 저의 빈자리를 대신해주신 전주기상지청 모든 직원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muchas gracias! 🇪🇸



## 가을에 마시면 좋은 차



아마 많은 분이 지난 여름 동안 차갑고 시원한 음료를 주로 즐겨 마셨을 것 같은데요. 올 가을에는 이 계절과 어울리는 색다른 음료를 직접 만들어 먹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더욱 맛있고 특별한 가을 차를 만드는 법!



황가은  
기상청 블로그 기자단



### 애플 레몬티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을 차는 바로 '애플 레몬티'입니다. 사과 는식이섬유가 풍부해 동맥경화 예방에 좋고, 칼륨도 풍부하여 체 내의 염분 배출을 도와 혈압 상승도 방지합니다. 또한 피부 미용이 나 다이어트 등 다양한 방면에서 효능이 있는 황금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는 9월부터 제철을 맞는 대표적인 가을 과 일이라는 점이 가을 차로 꼽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이지요. 비타민C는 피부 건강에 좋고 9월처럼 밤낮 기온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걸리기 쉬 운 감기를 예방해 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구연산 성분이 피 로 회복을 돕기도 합니다. 달콤한 사과와 상큼한 레몬이 만나 이 루는 새콤달콤한 맛과 향을 즐기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가을 차로 참 좋습니다.



### 로즈메리 허브티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차는 '로즈메리 허브티'입니다. 카페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로즈메리 허브티를 굳이 왜 가을 차로 소개하냐고 요? 그 이유는 로즈메리의 효능과 가성비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가을은 흔히 고독의 계절이라고 불리죠. 로즈메리의 향긋한 허브 향은 불안한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동시에 스트레스를 완화해줍니 다. 또한, 이 향은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나른한 가을 오 후 일의 능률을 높여줍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인 우울증과 불면증 치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가성비도 중요하죠. 보통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사 먹는 허브티 종 류가 4000원 정도라면 홈메이드는 물과 허브 잎 한 줌이 유일한 재료이기 때문에 500원도 안 되는 훌륭한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로즈메리는 작은 화분에 심어두면 쉽게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애플 레몬티 만드는 법

#### 재료: 사과, 레몬, 설탕

1. 껍질을 벗기지 않은 사과와 레몬을 베이킹소다를 넣은 물에 깨끗이 씻기
2. 사과와 레몬을 2~3mm 정도의 굵기로 썰기
3. 사과와 레몬을 설탕과 1:1 비율로 섞은 후, 병 안에 공기가 없도록 잘 눌러 담기
4. 일주일 후 숙성된 애플 레몬청을 기호에 따라 온·냉수/탄산수에 희석해 마시기



### 로즈메리 허브티 만드는 법

#### 재료: 로즈메리 잎

1. 로즈메리 잎을 따 자른 후 베이킹소다를 넣은 물에 깨끗이 씻기
2. 잘 씻은 로즈메리 잎을 가을볕에 3일 정도 말려주기
3. 마른 로즈메리 잎을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기(남은 건 용기에 보관)



## 그 밖의 가을 차

하지만 요즘은 집에서 가을 차를 만들 시간도 체력도 없는 분들이 많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물만 부으면 완성되는 티백 가을 차도 있습니다.

먼저 국화차입니다. 국화차는 향기로운 꽃 향이 가장 특징인 가을 차인데요. 국화차는 눈을 밝게 하고 머리를 좋게 하며, 신경통·두통·기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가을 차입니다.

다음은 대추차입니다. 대추는 신경쇠약이나 빈혈에 효과가 있어 체력이 부족한 분들이 마시면 좋은 차입니다. 또한 식욕을 돋우고 무기력한 신체에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피차입니다. 계피는 혈액을 왕성하게 해서 모든 장기의 기능을 촉진하는 큰 역할을 합니다. 열병이나 진통과 한기, 해열 등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절기 감기에 따뜻한 계피차 한 잔 마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을을 맞이하여 가을에 마시기 좋은 차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린 차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차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기호에 맞는 차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은은한 차 한 잔과 함께 올 가을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행운이 아닌 날들, 비행운(非幸運)

저자 김애란 | 문학과지성사

9월,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폭염이 지나가고 어느덧 가을이 다가왔다. 독서하기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나의 취미 중 하나인 독서(내 주위 지인들은 믿지 않지만)를 위해 책을 고르러 서점을 찾았다.

비행운……. 서점에서 처음 이 책을 집어 들었을 때, 제목을 보고 의아함과 호기심을 느꼈다. 차고 습한 대기 속에 운항 중인 비행기의 자취를 따라 생기는 구름을 뜻하는 ‘비행운(飛行雲)’으로 기상 관련 서적인 줄 알았던 나는 이 제목의 뜻이 불행을 뜻하는 ‘비행운(非幸運)’으로,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책의 몇 구절을 읽은 뒤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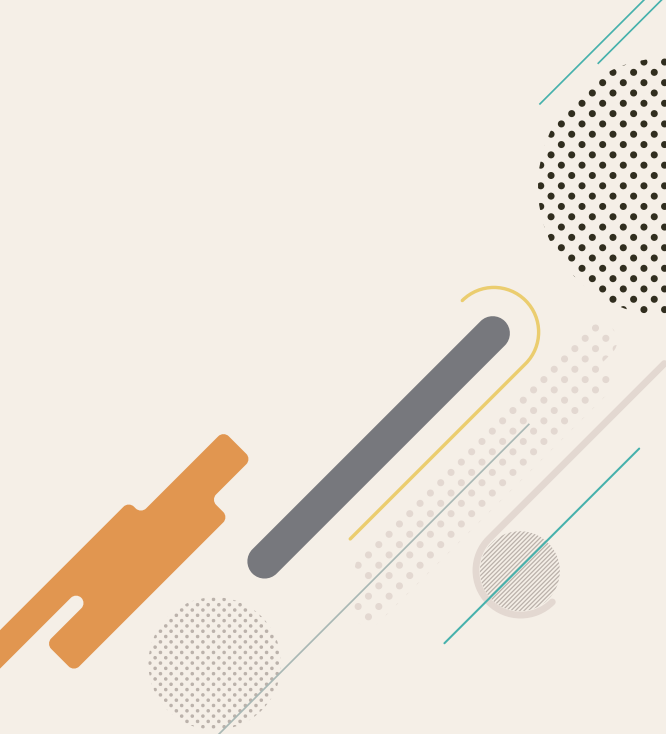
『비행운』은 짧은 단편 소설이 모인 우울한 느낌의 소설집이다. 이 짧은 단편 소설들은 닮은 듯 안 닮은 듯 묘한 공통점이 있다. 한 편씩 읽을 때마다 각각의 소설 속 주인공들이 저마다 불행과 좌절을 겪으면서 책의 제목대로 새드 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소설 하나를 읽고 나면 암울한 감정의 여운이 오래도록 머물렀다. 다들 익히 알고 있는,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 「운수 좋은 날」은 제목과 반대로 인력거꾼 주인공이 암담한 결말을 보여 독자에게 반전을 가져다주지만, 『비행운』은 자신의 제목을 너무나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행만을 경험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죽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주인공은 결국 우여곡절 끝에 해피엔딩을 맞을 거란 막연한 기대를 하며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소설집은 새드로 시작해서 새드엔딩으로 끝나버렸다. 독자는 이야기를 읽을 때 자신의 심리 상태와 가치관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에 놓인 주인공이 있어도 결국 불행이 행운으로, 좌절이 희망으로 역전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소설은 철저하게 비극으로 종지부를 맺고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 실린 단편 소설 하나를 완독할 때마다 나만의 희망적인 결말을 만들었다. 다른 독자들 또한 그랬으면 좋겠다. 비극으로 끝내기보다는 이야기가 연장되는 것처럼 본인만의 소설을 이어서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성진  
강원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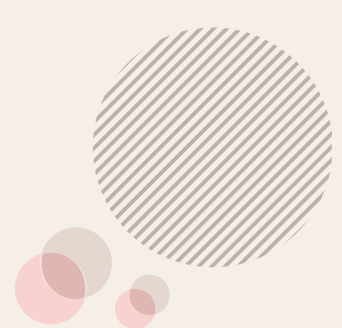
첫 번째 단편 속 주인공 여자는 대학 시절 선망의 대상이었던 선배로부터 몇 년 만에 만나자는 연락을 받는다. 주인공은 한껏 기대를 품고 선배를 만나지만 방송국 PD가 된 선배는 자신에게 ‘푸드파이터 프로그램’에 출연해줄 것을 부탁한다. 주인공은 씁쓸함을 느끼면서도 선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힘든 방송 촬영이 끝난 뒤, 선배는 한마디를 건넨다. “출연료 입금할 테니 계좌번호 알려줄래?” 내가 여자 주인공의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비참했을까.

두 번째 단편에서는 결혼한 한 쌍의 부부가 주인공이다. 영업사원 직장인인 남편은 일에 치여 사는 현대 샐러리맨의 모습을 대변한다. 허름한 지하 방에 신혼집을 차린 부부의 집안에는 꿈틀거리는 벌레들이 사방에서 나타나고, 이 때문에 임신한 부인은 우울증을 보인다. 아내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하소연하지만, 잦은 출장과 야근으로 바쁜 남편은 아내를 소홀하게 대한다. 그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속이 쓰렸다.

세 번째 단편에서는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객으로 붐비는 공항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50대 여인이 주인공이다. 여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이 쓴 편지를 오랜만에 받고 기뻐한다. 일은 고되지만, 아들의 편지를 받은 여인은 애써 기운을 낸다. 일이 끝난 후, 여인은 아들이 쓴 편지 내용을 기대하며 꺼내보지만, 감방으로 사식을 넣어달라는 한 줄 뿐인 편지를 보며 깊은 상실감에 빠진다. 그 밖의 다른 이야기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진다.

누가 이들을 비극으로 내몰았을까. ‘자본주의 사회의 비극’이라거나 ‘돈이 인간성을 초월해버린 모순된 구조의 잔인함’이라든가 하는 말로 그들의 불행을 규명할 수 있을까. 작가는 왜 하필 ‘비희망’도 아닌 ‘비행운’이라고 했을까. 미래에는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희망’마저 없는 탓에, 요행으로 ‘행운’만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싶은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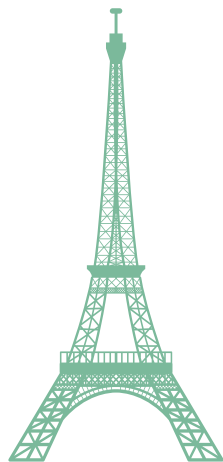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 인생에 불행한 날이 찾아오더라도,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파란 가을 하늘에 지나는 한 줄기 ‘비행운(飛行雲)’처럼 한 줄기 희망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 나 홀로 유랑인의 30일 유럽여행

기상청에 최종 합격한 후, 얼마간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였던 스페인이 문득 떠올랐다. 약 한 달간의 홀로 여행이라 출발 전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비행기를 탄 순간부터는 앞으로 여행하면서 느낄 경험과 호기심으로 가슴이 설렘.



김경희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

### 봉주르 파리!

스페인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예전부터 꼭 한 번 보고 싶었던 에펠탑을 구경하기 위해 파리에 잠시 머무르기로 했다. 숙소에서 친해진 몇몇 사람들과 에펠탑을 보기 위해 거리로 향했다. 저 멀리 에펠탑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전체 모습을 마주하게 된 순간, 나는 가만히 서서 에펠탑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아…… 정말 여행을 왔구나' 싶은 기분이 들었다. 새벽 한 시에만 볼 수 있는 화이트 에펠탑도 잊지 못할 장면이었다. 다음 날 방문한 루브르 박물관도 무척 좋았으나,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작품을 하나하나 보지 못해 아쉬웠다. 그래도 몽마르뜨 언덕, 개선문, 노트르담 성당 등 생각보다 많은 곳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기분으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다.

### 엄청나게 아름답고 믿을 수 없게 놀라운 스페인

드디어 그토록 기대했던 스페인의 첫 여행지 바르셀로나에 도착했다! 공항에서부터 스페인 사람들의 넘치는 여유와 흥이 느껴졌다. 바르셀로나라고 하면 가우디가 떠오를 만큼 가우디 건축물이 많은데, 그중 백미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지 않을까 싶다. 아직 공사 중이었지만 미완성이라 부르기 무색할 정도로 뛰어난 건축물이었다. 이 성당을 사람이 설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성당의 조각마다 모두 의미와 사연이 있어서 구경하는 동안 지루할 틈 없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몬세라트에서 들은 에스콜라





니아 합창단의 천상의 노래, 그라나다에서 알함브라 궁전을 바라본 야경, 론다에서 꼭 하룻밤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증명해준 누에보 다리, 스페인 주말 시장을 구경할 수 있었던 코르도바, 따사했던 세비야의 너무 예뻐던 오렌지 나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교회인 세비야 대성당 그리고 스페인 광장, 비 때문에 쌀쌀한 기억으로 남아 아쉬운 톨레도 등……. 모든 순간이 기억하고 싶은 날들뿐이었다.

### 포르투갈의 재발견

이번 여행에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포르투갈은 의외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여행지였다. 일정을 짧게 잡은 걸 후회할 정도였다. 가게마다 맛이 다른 에그타르트를 계속 먹어도 전혀 질리지도 않았고, 골목을 걸으면서 보는 풍경도 너무 예뻐다. 리스본 근교 여행 중에선 유럽 최서단인 호카곳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그곳에서 바라본 바다는 지금까지 본 바다 중 최고였다. 포르투의 동루이스 1세 다리 또한 누에도 다리와 또 다른 감동을 줬다.

### 신기한 도시, 두바이

귀국길에 레이오버한 두바이! 많이 더울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선선한 날씨여서 돌아다니기 적당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를 본 순간 말문이 막혔다. 124층 전망대에서 바라본 지상은 매우 작은 세계처럼 느껴졌고,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사막 한가운데 이런 도시가 있다는 사실이 신기해서 전망대에 꽤 오랜 시간 머물렀다. 밤에 펼쳐지는 레이저쇼와 인공호수에서의 분수쇼는 낮에 본 것과 달리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다. 시간상 하지 못한 사막투어는 아쉬움으로 남긴 채 여행을 마무리했다.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여행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다. 혼자 다닌 여행이라 때로는 외롭기도 했지만 여행지마다 좋은 동행과 정겨운 스페인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운 기억으로 추억되는 여행이었다. 마드리드 시청사 앞 스페인 국도에는 시작점인 0km 표식이 있는데 이곳에 발을 올려놓으면 다시 온다는 속설이 있다. 그 말처럼 언젠가 내가 다시 스페인을 오게 될 수 있길 소망해본다. 🇪🇸



## 오른편에서 몰드는 가을

결국이라든가 마침내라는 말로 시작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다만 그런 수식어를 붙이는 것으로 어찌면 이 어려웠던 감정을 조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편도 좋지 않을까 잠시 생각했을 뿐이다. 여자가 몇 번의 망설임 끝에 내린 결정은 헤어지자는 것이었다. 그 망설임은 통화 중에 생기는 간헐적인 침묵 속에서, 산책길에서, 불현듯 엇갈리는 걸음걸이에서 묻어나는 불안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옥수  
독립잡지 트램폴린 편집장

어제는 가을비가 내린 날이었고, 여자는 지난봄 몇 번이나 연습했던 고백의 말 대신 이별의 말을 상기시켜보았다. 이제 그만하자든가 헤어지자는 말. 모두 같은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남자가 덜 상처받고 여자가 덜 상처를 주는 말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하지만 이별의 말이란 늘 그렇듯 칼자루 없는 칼과 같은 것이어서 양쪽 모두에 흉터를 남긴다는 사실을 몇 번의 연애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덜 아프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남자도 덜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이 연애에 대한 어떤 아쉬움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남자에게 무언가 상처를 주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없는 남자의 눈동자라던가 언제나 세심하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그의 말이 때때로 여자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여자를 힘들게 했다. 충분히,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받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누군가를 완벽하게 사랑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왔지만 남자 앞에서의 여자는 조금 어설프고 부족하게만 느껴졌다. 불안한 여자의 마음을 읽은 남자는 종종 여자에게 사람과 사람은 똑같은 크기와 무게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는 것이라 말했지만 여자는 그럴수록 사랑의 강도와 형태에 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시소 위나 천칭 저울 위에 올라탄 기분이었다. 한없이 내려가는 그를 바라보며 끝없이 위로 떠올랐다. 누군가는 여자에게 연애를 하면 하늘을 걷는 기분이라잖아,라며 낮간지러운 말을 했지만 여자는 차츰 숨을 쉬기 어려운 기분이 들었다. 허공에서 한없이 발을 흔들 뿐이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여자는 헤어지기로 결심했을 뿐이다.

카페에서 남자를 기다리는 동안, 비는 거세졌다. 창밖으로는 우산을 든 사람들이 춤추듯 서로를 엇갈려 지나갔다. 머플러를 두른 사람도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겹옷을 챙기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제는 조금 두께감이 있는 겉옷이 아니면 꽤나 쌀쌀하게 느껴졌다. 가을의 속도란 짐작할 수 없었다. 자다 일어나서 창을 닫았고, 침대에서 내려오다 발바닥에 닿는 찬 기운에 깜짝 놀랐고, 어제 입었던 옷을 오늘 입으면 분명히 감기에 걸릴 것 같은 날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렸다. 계절의 경계가 그라데이션처럼 불분명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선을 그어버린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선이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 놓인 것만 같아서 여자는 두 손으로 마른세수를 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천천히 물이 드는 일이 연애라고 믿어왔지만 여자는 여자의 테두리를 모두 무너뜨리며 다가오는 남자에게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서로가 서로를 밀거나 당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상에 스미고 마음을 닦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여자는 자신을 잃는 것과 동시에 남자를 잃는 기분이었다. 입이 자꾸만 말랐다. 하지만 이별이라는 짧은 단어 앞에서 사람과 사람의 사이란 얼마나 간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무렵, 오른쪽 어깨가 젖은 남자가 여자의 앞에 앉았다.

남자는 우산에 붙어있었다며 젖은 단풍잎 하나를 여자에게 내밀었다. 지난 봄날에는 남자가 모자 위에 떨어졌다며 벚꽃잎을 몇 장 내밀었던 것이 떠올랐다. 여자가 아직 초록이 남아 있는 단풍을 오래 들여다보자 남자가 입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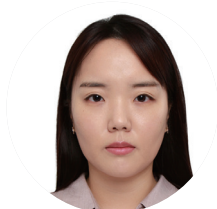
“참 신기해. 주변을 둘러보면 어느 순간 단풍이 들어있지만 단풍은 나름의 속도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거 말야. 그런데 단풍이 늦게 든다고 조금 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그렇게 어느 순간 깊은 가을이 오는 게 참 놀랍지 않아?”

두 사람 사이에 조금은 긴 침묵이 이어졌다. 여자는 남자의 오른쪽 어깨를 바라보았다. 비에 젖은 오른쪽 어깨 부분에는 진한 빛이 돌고 있었다. 그리고 여자는 결국 남자와 헤어질 수 없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가 오면 남자의 오른쪽 어깨는 늘 젖었다. 남자의 왼쪽에는 늘 여자가 있었고, 두 사람 위의 우산은 언제나 왼쪽으로 기울었다.

여자는 우산을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일로 이 불안한 관계의 온도를 맞추기로 한 오후였다. ❄

## 이방인으로 사는 법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혼자서 1년에 한두 번씩 다른 도시를 옮겨 다니며 살았다. 내 의지로 집을 옮겼다가보다는 신기하게도 매번 옮겨야만 할 일이 생겼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 한곳에 적응이 좀 되었다 싶으면, '흠... 이쯤에선 또 떠나줘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어김없이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상황이 만들어졌다.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집을 구하고, 직장을 얻고, 사람들을 사귀며 살아가게 되는 경험은 이전에 본가 토박이로 살던 나에게 큰 변화였다.



노효신  
프리랜서 작가



### 영원한 룸메이트가 생겼다

덕분에 삶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다.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떠날 준비를 하며 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그날의 시간이, 만나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돌아보니 지난날의 경험은 이방인이 되기 위한 연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다 건너 타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올 때도 별다른 마음의 준비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그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남편이라는 영원한 룸메이트가 생겼다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기 시작했다. 이곳은 '나성'이라는 별칭도 있을 정도로 한국인이 200만 명이 넘게 사는, 거의 한국 소도시 같은 곳이지만 그래도 외국은 외국이다. 제일 먼저 체감한 것은 날씨였다. 매일 화창하고 건조한 사막 기후는 피부가 간지럽고 따가울 때마다 내가 다른 땅에서 왔다는 것을 실감하게 했다. 또, 그동안 언어 능력으로는 문제없이 살아왔고 심지어 글을 써서 밥 벌어먹던 내가 이곳에서는 네 살짜리 꼬맹이보다도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 낯설고 당황스러웠다. 허나 이것은 이미 예상한 결과이자 당연한 절차. 이방인을 위한 첫 번째 지침은 내가 갓 태어난 신생아와 다르 없다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이다. 부끄러워하거나 아는 척하는 것보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 우여곡절 끝에 치른 혼인 신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멘탈이 휘청한 사건을 겪게 되는데, 혼인 신고를 하러 법원에 갔을 때였다. 미국은 법원에서 결혼식 허가증이라는 것을 발급해줘야지만 합법적인 혼인을 할 수 있다. 법원이라는 장소의 무게감이 있긴 해도 설마 영어 못한다고 결혼 안 시켜주랴, 했더니 그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신청을 받던 담당자가 갑자기 나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시작한 것이다. 남편이 번역을 도와주려 하자, 담당자는 제지하면서 나 혼자서 대답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 후 휘몰아치는 질문에 어떻게든 대답을 해보려 했지만 결국 제 3자를 통역자로 데려오라는 명령과 함께 법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알고 보니 '예전에 결혼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당당히 '예스'를 외쳤던 것이다. 그날은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의기소침했지만, 일주일 후 다시 찾아가 무사히 허가를 받아냈다. 두 번째 지침은 좌절에 익숙해지되 빨리 털어내라는 것이다.

### 나의 작은 친구들

이곳에서는 내 생활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다. 심 없이 바쁘게 살다가 맞이하게 된 여유는 참으로 달콤하였으나, 이 시간이 길어지면 스스로 무용하게 여겨지기 십상이다. 내에게도 그런 순간이 슬쩍 찾아왔다 갔는데, 정말이지 이 넓은 땅이 얼마나 좁고 갑갑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그때 작은 기회가 주어졌다. 바로 한국계 미국인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그렇다! 여기서 나는 한글 원어민이다! 게다가 학교 측에서는 영어를 못하는 선생님을 더욱 필요로 했다. 재밌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어쨌든 나는 8살에서 10살의 아이들에게 내가 아는 한글을 가르쳤고, 그들은 이방인인 나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준 현지인이 되었다. 작은 친구들과 작은 일을 소중히 여겨라. 이것이 이방인을 위한 세 번째 지침이다.



### 지구별을 여행한다는 것

사실 이러한 삶의 태도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삶은 지겹도록 반복되는 듯 보여도 결국엔 지구별을 떠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 또 어찌 아는가? 여기가 익숙해질 즈음, 또 다른 낯선 곳으로 여행을 시작할지도 모를 일이다. 🌍

#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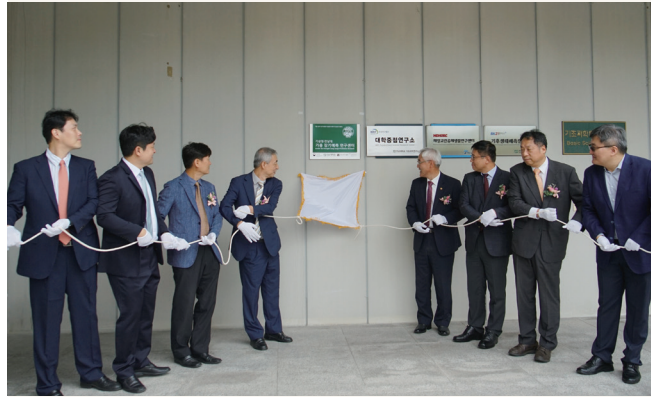
슈퍼컴퓨터 사용자 워크숍 개최(9월 5~6일)  
지구환경시스템 및 대기과학 분야의 슈퍼컴퓨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 연수회가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됐다.



기상청-행안부 공동 2018 지진안전캠페인(9월 11일)  
기상청은 지진안전주간(9.10~9.14)을 맞아 지진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대응 요령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진안전캠페인을 서울역에서 진행했다.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단



가뭄특이기상연구센터 개소(9월 6일)  
기상학적 가뭄 발생의 과학적 원리를 밝히고, 가뭄 장기예보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가뭄특이기상연구센터가 전남대학교에서 개소했다.



지진 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 토론회 개최(9월 13~14일)  
국내외 지진 전문가들이 서울 AT센터에 모여 지진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진에 대한 외국의 최신 연구 동향과 국내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지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Photo News



## 2019년 세계기상기구 달력 표지 선정(9월 19일)

세계기상기구(WMO)가 개최한 2019년 달력사진공모전에 기상청의 기상기후사진전 입상작 두 점이 선정되었다. 선정작은 금오산 약사암 일출 풍경을 담은 '돌탑과 햇무리'와 영하 18도에 서 피어난 상고대와 물안개를 담은 '혹한의 아침을 열다'이다.



## 기상청 청장, 전통시장 방문(9월 20일)

김종석 기상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관악신사시장을 방문해 물품을 구입하고 기상청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 설악산 첫 단풍 시작(9월 27일)

강원도 설악산의 첫 단풍이 시작되었다. 이번 단풍은 작년보다 5일 늦게 물들었으며, 평년과는 같았다. 전국 국립공원의 단풍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http://www.weath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48차 IPCC 총회 개최식 개최(10월 1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48차 총회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10월 1~5일)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요약본이 검토되었다.

# 독자마당



##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 퀴즈 참여 방법

퀴즈 정답은 10월 25일까지 전자우편 (kmanews@korea.kr)으로 구독 소감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 기고 방법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 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 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이나 원고료를 드립니다.

## 한 단어? 한 문장!

제시한 단어에 대한 의미를 참신한 생각으로 뽑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11월호의 단어는 <그리움>입니다.

### 지난달 우수한 한 문장! <가을>

양경순, 울산  
수확을 앞둔 농부의 분주한 손  
박미경, 창원  
한해의 아쉬움이자, 남은 두 달의 설렘  
백귀혜, 전남  
낙엽이 툭툭! 낭만이 툭툭!

김태완, 서울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먹거리가 풍부한 계절  
서명수, 인천  
부모님의 마음과 고향의 하늘이 그리워지는 계절

## QUIZ

### 지난달 퀴즈 정답

### 지난달 퀴즈 정답자

1. 태국에서 인공증우-증설을 이용해 내린 비를 일컫는 말은?  
① 왕의 비    ② 여왕의 비    ③ 황제의 비    ④ 황비의 비

1. ④ IPCC  
2. ③ 800km

이선주(성남), 서미숙(전주),  
유재범(서울), 정혜원(양산),  
이창준(인천)

2. 제주관광공사와 일로와제주가 기획한 제주도의 야간 벵룩시장 이름은?

- ① 야문딱 장터    ② 야문딱 털장  
③ 아우리 털장    ④ 아우리 놀장

## 인사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임명	'18.9.10.	관측기반국	계측기술과	기술서기관(과장)	김용진
전보	'18.9.9.	기상청		기상사무관	이제광
	'18.9.9.	기상청		기상사무관	전상현
	'18.9.9.	기상청		기상사무관	한대석
휴직	'18.9.10.~'18.12.21.	기상청		기상사무관	전상현



## 시끌벅적 하늘사랑

### 박미경 창원

김종석 기상청장님의 취임사 잘 읽었습니다. 10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기상청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청장님의 굳은 의지는 앞으로 더 발전할 기상청의 모습을 기대하게 만드네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명하고 맑은 자세로 기상업무에 총력을 기울일 소통의 기상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든든합니다. 제13대 기상청장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인정받고 신뢰받는 기상청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 서명수 인천

산티아고 순례길 이야기가 재밌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왕복 거리를 도보로 걷는 산티아고 길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적지 않은 나이에 평균 하루에 20-25km를 한 달이 넘는 시간을 매일 걸으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듯 여행의 참맛은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통해 얻는 배움이 아닐까요? 기회가 된다면 저도 꼭 한 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용기가 생기는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미숙 전주

‘지구온난화가 태풍을 더 강하게 만든다?’ 기사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단순히 더위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앞으로 기상청에서도 지구온난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우리의 삶과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하니 조금 씁쓸하네요. 지구온난화를 돌이키기엔 늦었는지 몰라도, 지금이라도 조금이나마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해보아야겠습니다.

### 유재범 서울

기상청 인터넷 방송 날씨ON을 즐겨보는 한 사람으로서 관련 기사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단 몇 분의 짧은 방송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 최선을 다하는 제작진과 기자들의 프로다운 모습이 인상적으로 비쳐지네요.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방송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하는 분들이 노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날씨ON을 보면서 제작진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도 헤아려보겠습니다.



## 멀리서 온다

그리운 것들은 멀리서 온다

가까운 것들의 소중한도  
잊지 않아야겠지만

멀리서 오는 것이  
더 반가운건 어쩔 수 없다

유달리 길게 느껴진 올해 여름 뒤  
멀리서 찾아온 가을이

그래서 더 반가운가보다

온몸으로 오롯이 느껴지는  
이 선선한 바람이 가면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겠지만

우리는 또 기다릴 것이다  
멀리서 오고 있는

봄을

글: 최익수

사진: 금기풍, <메타세콰이어의 빛내림>, 2011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제6차 OECD세계포럼

# 제6차 OECD 세계포럼

## 미래의 웰빙

• 디지털화와 웰빙 • 복잡한 세상에서의 거버넌스 • 기업의 역할과 웰빙

전 세계 100여 개국, 1,500여 명의  
국제기구, 각국 정상급 인사,  
노벨상 수상자, 시민단체, 기업 등의  
관계자가 함께하는  
**제6차 OECD세계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 2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 ■ 참가 대상자

- 국회,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의 정책 입안자 및 결정자
- 대학, 연구기관, 학회 등의 연구자
- 국제기구, 언론, 시민단체, 기업 등의 주요 인사

### ■ 참가신청 및 등록

- 제6차 OECD세계포럼은 초청에 의해서만 참가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oecd-6wf.go.kr](http://www.oecd-6wf.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연사

김동연 Kim Dong-yeon	제6차 OECD세계포럼 준비위원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You Young-mi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신욱 Kang Shin-wook	통계청장
반기문 Ban Ki-moon	전 UN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 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
오후드 빈트 칼판 알 로우미 Ohood bint Khalfan al Roumi	아랍에미리트 행정부 장관
조지프 스티글리츠 Joseph E. Stiglitz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01년 노벨 경제학상
라비 칸부르 Ravi Kanbur	코넬대학교 세계화-경제학 교수
코트니 오도넬 Courtney O'Donnell	에어비앤비 전략기획대표
데이비드 필링 David Pilling	Financial Times 아프리카 편집장, 작가
줄리아 홉스봄 Julia Hobsbawm	「과부하 시대의 생존과 번영」 저자
라하프 하프쉬 Rahaf Harfoush	커뮤니케이션 전략가 및 디지털 인플루언서
크리스틴 피터슨 Christine Peterson	미래학자, 나노학자, Foresight 연구소 공동 설립자

### ■ 주요 프로그램

#### DAY 1) 2018년 11월 27일(화)

10:30-11:00	미래세대를 위한 보다 책임감 있는 세상	기조연설
11:30-13:00	미래에 펼쳐질 삶은 어떠할까?	전체회의
13:15-14:00	경제성과와 사회 발전 측정에 관한 고위 전문가 그룹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14:30-15:00	디지털화의 전망과 적응	기조연설
15:00-16:30	디지털화와 웰빙	전체회의

#### DAY 2) 2018년 11월 28일(수)

09:00-09:30	정부와 사회 간 신뢰회복	기조연설
09:30-11:00	복잡하게 변하고 있는 세상과 거버넌스	전체회의
13:45-14:30	노벨수상자(경제학상)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와 데이비드 클락 뉴질랜드 보건부 장관의 대담	대 담
14:30-16:00	기업의 목표로서 웰빙과 포용적 성장	전체회의

#### DAY 3) 2018년 11월 29일(목)

09:00-09:30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거버넌스	기조연설
09:30-11:00	발전을 위한 향후계획	전체회의
13:15-13:45	글로벌 개발전망	기자회견
13:45-14:30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베라송웨 사무총장과 남아공 경제개발부 에브라힘 파텔 장관의 대담	대 담
14:30-16:00	미래웰빙 계획	전체회의
16:00-16:30	미래의 웰빙을 준비하며	폐막연설

### ■ 부대 행사

- OECD세계포럼 전시회, 부대회의, 양·다자회담 등

행사문의 Tel. 042-489-2924 Email. [ocd2018@korea.kr](mailto:ocd2018@korea.kr)

등록문의 Tel. 02-6245-6339 Email. [ocd2018\\_reg@intercom.co.kr](mailto:ocd2018_reg@intercom.co.kr)

#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2018. 11. 14.(수) - 16.(금)

KINTEX 제1전시장

주 최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주 관 KMI 한국기상산업기술원 Korea Meteorological Institute KINTEX 에너지경제

병행개최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2018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 행사 특징

- 1) 국내 최대규모의 기상기후산업 전문 박람회
- 2) 기상기업의 실질적 판로 개척을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플랫폼
- 3)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병행 개최로 5만명 이상의 참관객 방문 및 기업니즈에 맞는 서비스 제공
- 4) 기상기후 관심 국민을 위한 다양한 체험형 부대행사 마련

## 참가기업

기상장비, 기상예보, 기상컨설팅 분야 기상기업 및 유관기관, 미세먼지 관련 기업,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및 예비 창업팀(청년스타트) 등

## 부대행사

부대행사 미래유망 기술 소개 등 최신 기상산업 동향 세미나, 비즈니스 상담회 및 수출상담회, 지진·날씨·기후변화 체험 및 천리안위성 2A 등 전시

## 참가신청 방법 및 참가신청 문의

- 온라인 참가신청(meteoexhi.kr) → 참가비 납부 → 부대시설비 납부
- 2018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사무국 T.031-995-8242 E.meteo@kintex.com



박람회 사전참관 신청